"'자리이타'행으로 용인불교 발전 견인"

용인불교사암聯 회장 정호 스님 취임법회

1월 18일 호국선봉사서 봉행
사부대중 600여 명 운집 '축하'
자광대종사 신년특별법문 설해
전 회장 법경스님 공로패 전달

용인=신중일 기자

"불교의 힘은 자리이타(自利利他) 대승보살행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라'는 대승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용인불교사암연합회는 불자들은 물론 용인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용인 대각사 회주 정호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승보살행'을 강조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용인불교사암연합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18일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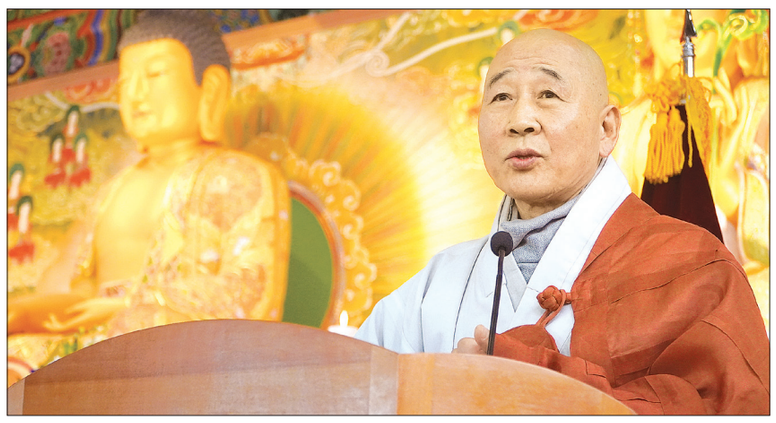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용인불교사암연합회 현 회장 정호 스님, 전임 회장 법경 스님, 초심호계위원 법진 스님 등 지역 및 종단 주요스님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자광 대종사는 신년특별법문을 통해 자기 자신의 공덕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을 대중들에게 제언했다.

자광 대종사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일삼는 게 아니라 하나된 세계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이다. 이 같은 보살행을 계속하면 공덕 창고에 공덕이 계속 쌓이고 이것이 넘쳐 터지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며 "성불은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선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중생이 부처로 향하는 길"이라고 설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정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 회장 보경 스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화합하는 사암연합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정호 스님은 "출가자가 지켜야할 마음가짐 중 하나로 '유화선순'이 있다.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순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존경과 배려의 마음으로 화합과 질서가 바로잡힌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월 18일 열린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이 · 취임법회'에서 신임 회장 정호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혼자서는 어렵다. 이 자리에 계신 회원스님, 신도 여러분이 활기찬 용인불교, 자랑스런 용인불교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푸른 뱀, 청사(靑蛇)의 해를 맞아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뱀처럼 용인시도 올 한해 다양한 변화 속에서 거듭 발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전임 회장 법경 스님은 이임사에서 "신임 회장 정호 스님은 포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다문화 활동 등으로 이미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훌륭한 스님"이라며 "앞으로 용인불교사암연합회가 종교로서의 불교를 넘어 시민들에게 정신문화적 안식처가 되어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하며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임사 직후 자광 대종사는 법경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들 마음 속에는 자비심의 불씨가 있다"면서 "용인불교계가 그 불씨를 잘 지켜주시면 용인특례시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안불교사암聯 제14대 회장에 도언 스님

1월 18일 만수사 대웅전서
"시민과 함께하는 전법할 것"


천안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18일 천태종 만수사 대웅전에서 '제14대 회장 취임 및 진산식 법회'를 진행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천태종 만수사 주지 도언 스님이 취임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1월 18일 천태종 만수사 대웅전에서 '제14대 회장 취임 및 진산식 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광덕사 주지 철웅 스님,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 양천사 주지 인봉 스님, 연대선원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스님들과 정효숙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수석부단장을 포함한 포교사들과 이정문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및 지역 기관장들, 김명환 만수사 신도회장, 윤학명 각원사 신도회장, 한진우 각원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지역불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연합회 총무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 융창 기원 △만수사 신도회장 인사말 △취임사 △축사 △내빈소개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회장 도언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교도 시민들과 함께하며 일상에 지친 이들을 어루만지는 도심 속 포교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실제로 초파일과 초하루 및 보름에만 찾던 산사에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상의 재충전을 위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초파일 등 연합회 행사 등 중점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우수한 포교사례 등을 활성화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원로위원 인경 스님은 "천안 불자들도 신임 회장 스님과 힘을 모아 모든 사업 계획들이 성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천안불교사암연합회는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에 후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온 가족이 즐기는 '어린이 명상캠프'

백양사 1월 18~19일 개최
오감, 알아차림 명상 등



고즈넉한 사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 명상 캠프가 개최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18일부터 이틀간 경내에서 '백양사 어린이 겨울명상 캠프'를 열었다.〈사진〉

'백양아이 명상캠프, 궁금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어린이 51명이 참가했다. 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오! 센스명상 △종을 울려라 △불멍의 미학 △우리는 하나 1·2 △어린이 수계식 등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상 호흡 실습과 더불어 자신과 짝꿍의 작품을 보고 명상한 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여기에 딸기를 두고 한 '보기·맡기·만지기·먹기 명상'은 어린이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회향사에서 "지난 이틀간 어린이 여러분 덕에 밤에도 백양사가 환하게 빛나 행복한 기운이 넘쳤다"면서 "백양사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도록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고,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지도법사 형진 스님(광주 연화어린이집 원장)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는 '오감 명상'을 통해 아이들이 현재에 집중하며 스스로 안정을 느끼길 바랬다"며 "또한 '감사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도 체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캠프에 참여한 장명서(초6) 어린이는 "학교를 다니며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캠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특히 '알아차림'과 '감사'에 대해 고민해도고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성원 대종사 43주기 추모재

1월 18일, 경내 대웅보전서
2025년 1차교구종회 개최도



화엄종주의 교지를 잇고 백양사·대흥사·불국사 강주를 역임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운기당 성원 대종사 43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사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1월 18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대강백 운기당 성원 대종사 열반 43주기 추모재'를 열고 대종사가 남긴 유지를 이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대우·법철·선일 스님 등 운기당 문도스님들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재안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죽비3배에 이어 △행장소개 △종사영반 △분향 및 헌다 △입정 △문도 대표 인사말 △공지사항 순으로 이어졌다.

행장소개에 따르면 운기당 성원 대종사는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했다. 교육에 전념하던 대종사는 1982년 세납 84세, 법랍 68세로 입적했다.

대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정성을 다해 은사스님의 43주기 추모재를 준비해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에 감사하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앞으로도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같은 날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불기 2569년 1차 교구종회'가 개최됐다.

총무국을 비롯한 교구 현황보고와 2024년 결산 심의, 2025년 분담금 배정 및 조정, 전주 포교당 건립 특별분담금 지정, 기타 안건 등에 대해 토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聯, 이웃사랑 자비나눔법회

1월 22일 창원시청 시민홀서
취약계층에 3200만원 전달해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와 (사)금강자비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와 (사)금강나눔자비회(이사장 진정혜)는 1월 2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4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창원불교연합회 회원사찰과 창원특례시, 한마음병원, 세창공업(주)의 후원과 협찬으로 자비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창원이웃사랑자비나눔행사는 지난 1991년 시작돼 33년간 저소득층 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약 15억원의 자비성금을 전달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40명과 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40명에게 자비성금 3200만원이 전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사, 제3회 전통사경원 회원전

2월 28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이 2월 28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제3회 화엄사전통사경원 회원전'을 개최한다.〈사진〉

'墨香萬里(묵향만리), 전통사경 천년의 숨결 화엄세상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화엄변상도, 반야심경, 약찬게 등 사경원 회원 18명이 직접 필사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산하 화엄불교대 36기 졸업식

1월 27일, 전북불교회관서



화엄불교대(학장 화평 스님, 금산사 주지)와 화엄학림원은 1월 27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화엄불교대학 제36기·화엄학림원 제28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화평 스님은 화엄불교대의 전 과정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에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도사인 동시에 이타적 삶의 실천자, 보살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종단協, "울산 정신문화 선도"

1월 21일 신년인사회서



울산광역시 불교종단협의회(회장 혜원 스님)가 1월 21일 울산 해남사 보광당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울산의 정신문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울산불교종단협의회장 혜원 스님은 신년사에서 "태화사지 복원, 차문화전승관 건립, 국제선센터 개원 등 울산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소외계층 위한 설 음식 나눔

1월 18일, 지역 120가구에



매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하는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과 반찬봉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진안읍 소외계층을 위한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사진〉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월 18일 쌍봉사 반찬봉사단과 함께 '설 명절음식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붓다, 설맞이 지역 떡국 나눔

300인분 소외계층 위해



(사)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가 1월 23일 전주 붓다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역민에게 떡국 나눔을 펼쳤다.〈사진〉

이날 나눔 행사를 위해 복지관 봉사자들은 밤새 육수를 고아 준비된 가래떡 80kg으로 떡국을 만들었다.

현진 스님은 "힘든 시기에 맞이한 설 명절이지만, 새해 희망을 기원하며 떡국을 드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